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그 발생기전에 있어서 병태생리가 잘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질환에 대한 자연사(natural history)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어 조기 진단을 하여 자궁경부암 전구질 환인 이형증에서 처치를 하면 일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학자들에 따라 다소 이견을 보이지만 대개 이형증에서 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 이행되는데는 5 ~ 20년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진행기간 동안에 정확한 검진이나 진단을 통

속하고 면역기능이 부족하여 외상이나 염증에 감수성이 높은 경우이다.

넷째 성교 파트너의 수가 많은 경우, 즉 감옥에 있는 죄수나 매춘부 그리고 혼외정사의 경험에 있는 부인에게서 자궁경부암의 이병률이 높은 것이나, 두 번 이상 결혼한 부인, 과부, 별거생활 또는 이혼한 부인에게서 다른 부인보다 자궁경부암의 이병률이 현저히 높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높은 출산 경력자와, 여섯째 매독, 임질, 트리코모나스, 클라미디아, 콘딜로마, 생식기 포진, 구지 및 정자 등의 성병에의 감염 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일곱째로는 질 트리코모나스 감염, 클라미디아, 감염생식기 포진 바이러스 감염 외에도 자궁경부암의 발생원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바이러스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있다.

여덟째로는 사회경제적으로 하류층의 부인에서 상류층 부인보다 자궁경부암의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비위생적인 개인 위생과 성행위, 산과적으로 분만 후 섭생 등을 포함한 빈곤한 의료, 무질서한 생활양식 그리고 불안정한 결혼생활 등 많은 설명들이 생각되지만, 그 중에서도 젊은 나이의 첫 성교나 결혼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아홉째로는 자궁경부암 발암 현상에 있어서 자궁경관 상피에 대한 만성 자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로는 임신이나 분

## 자궁경부암의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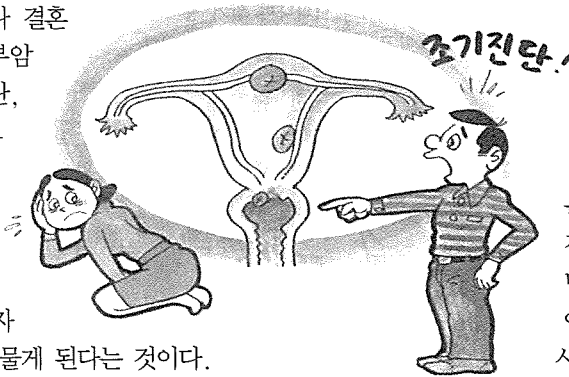
안 응 식 ·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산부인과

해 암 전구질환을 진단해 낸다면 자궁경부 침윤암으로의 사망률은 현격히 줄어들 것임이 틀림이 없다.

자궁경부암의 발생원인은 다른 모든 암의 원인과 같이 분명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들은 자궁경부암 발생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런 것이 원인적 인자라고 간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자들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포함된다.

첫째 할례의 유무, 둘째 조기 결혼이나 어린 나이에 첫 성교의 유무, 셋째 첫 성교가 이루어진 나이가 여러 자궁경부가 미

만을 많이 한 다산부나 결혼 한 부인에서 자궁경부암이 빈번하고 자궁 미란, 만성 경관염, 그리고 치료되지 않은 자궁경관 열상 등은 자궁경부암 발생의 가장 적합한 부위가 되나 완치된 후에는 자궁경부암의 발병이 드물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궁경부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암 발생 원인에 노출되는 것을 주의해야 할 뿐 아니라, 자궁경부암 전구질환의 조기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아무 증상이 없으면서 성적으로 노출이 된 여성에서는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

현재까지 자궁경부 이형증이나 자궁경부암의 검진을 위하여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두말 할 것도 없이 자궁경부암의 조기검진에는 세포진검사(cytology)가 가장 실제적이고 경제적이다.

그러나 아주 적절한 세포진 검사를 했다 할 지라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완벽하게 자궁경부암을 진단할 수 없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왜냐하면 자궁경부암 검진에 있어서 병변이 있어도 진단해내지 못하는 세포진 검사의 위음성률(false negative rate, 5 ~ 50%)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궁경부 이형증은 물론이고 자궁경부암 조차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와 현미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질 확대경 검사(colposcopy)를 동시에 사용하면 자궁경부의 병변을 진단하는데는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확대경 검사의 이용은, 경제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고가 장비를 구입하는 데 오는 경제적인 여건과 판독할 수 있는 유능한 부인과 종양학 전문의가 매우 적다는 현실이 있다.

이에 반하여 1980년도에 자궁경부암 검진에 사용되기 시작한 자궁경부 확대 촬영검사법(cervicography)은 미국의 Staf1(1981)박

사에 의해 처음으로 창안되어 사용된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새로운 검사법이다.

자궁경부 질병의 발견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궁경부의 소견을 영구히 서면화하고 확대경검사를 예술에서 과학으로 변형시킨 검사방법인 것이다.

자궁경부 확대촬영 검사는 유능한 판독자(evaluator)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 질확대경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궁경부암의 검진에 있어서 매우 정교한 질적인 우수성을 지니고 있고, 이 검사법은 외자궁경부의 동적인 질확대경에 의한 사진을 그대로 재연해 내는데 그 특성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자궁경부 확대촬영검사는 기존의 세포진 검사나 질확대경검사 대신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궁경부암 검진에 있어서 세포진 검사와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적인 여건에서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인구 10만명당 약 27명의 발생빈도를 보이는 자궁경부암의 퇴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통한 조기진단을 통하여 자궁경부암의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떠한 방법(세포진검사, 자궁경부 확대촬영, 질확대경검사 혹은 이들 검사의 병용)으로 진단을 하든지 검진을 하든지 간에, 혹은 몇 개 검사를 동시에 합치든 간에 우리의 여건으로는 우선 급한 것이 자궁경부암 내지는 전구질환의 발견이라 하겠다.

이러한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해 여러 가지 가능한 보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검진을 체계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전국민 홍보를 통하여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 하겠다. 이런 면으로 보면 세포진 검사와 함께 자궁경부 확대 촬영 검사야말로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에 있어 우리의 여건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72